

'사드 맹공' 중국의 속내는

한국 때리며 미국 2패권 견제

WSJ 사드 보복 배경 분석
막강 화력 대중 봉쇄망 붕괴
'아시아 홀대' 트럼프 시험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이후 무차별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한반도에서 시작해 일본 열도를 지나 필리핀, 호주까지 이어지는 미 우방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으로 막혀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중국을 둘러싼 군사 비핵화와 해군 정박지, 레이더 배치, 감청기지들로 이뤄진 대중 봉쇄망은 5척의 항공모함과 1500대의 항공기를 거느린 미 태평양사령부의 막강한 화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WSJ는 이러한 화력에 맞서기에 역부족인 중국이 미 동맹국을 협박해 미국의 권위와 신뢰성을 손상하는 새 전략에 골

몰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동맹국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자 미 우방국을 괴롭히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은 베트남 인근 해역에는 군함 못지않은 화력을 갖춘 선박들로 보호받는 거대한 석유 시추선을 보냈다. 1980년대 미군 기지들을 철수토록 한 필리핀은 이미 중국의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WSJ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사드 배치를 연기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면, 대중 봉쇄망의 핵심적인 고리를 약화하는 큰 소득을 얻는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데다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까지 갖춘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필리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의 핵 위협과 2만8500명의 주한 미군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도 조금씩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측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

로 중국 지도부를 자극했지만,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무임승차자'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핵 역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레스 터일러슨 국무장관이 동북아로 달려오는 것도 놀란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WSJ는 해석했다. 한국 차기 정부의 성향도 변수로 주목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북한에 유화적인 '햇볕정책'의 시각을 갖고 있어 강경한 미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에 대한 지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도 이러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력을 시험받을 가장 큰 난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실존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고, 미국의 아시아 지배권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중국에 맞서 우방국과의 단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순망치한' 우려 북한 정권 지키기

홍콩 일간지 칼럼 게재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 필요
한반도 비핵화 역행하는 선택

한반도 사드(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공산주의 형제국가 북한정권 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속내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사드 배치가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일 수 밖에 없고 중국 역시 내심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 상실을 우려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라는 진단이다.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에서도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중국의 최근 행보에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캐리 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니스트는 15일 '한·중간 실제 갈등이 사드 배치가 아닌 이유'란 제목의 칼럼에

서 중국이 북한과 공산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한국이 국방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한·중은 역사적 유대와 경제적 밀접성, 공통된 지역 안정 염원 등 관점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일본, 대만과 같은 관계인 중국도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지만, 중국이 공산동맹인 북한을 길들이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선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미사일 실험을 강화했다며 어떤 면에서는 사드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중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

에 한·중이 협력할 동기가 많지만,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지정학적 필요성과 이념적 필요성이라는 모순된 2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동맹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황 칼럼니스트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공산당 정권 중 하나가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동맹과 공산당 통치의 사례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국의 마지막 노선이라고 관측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 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으며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이웃 국가와 불신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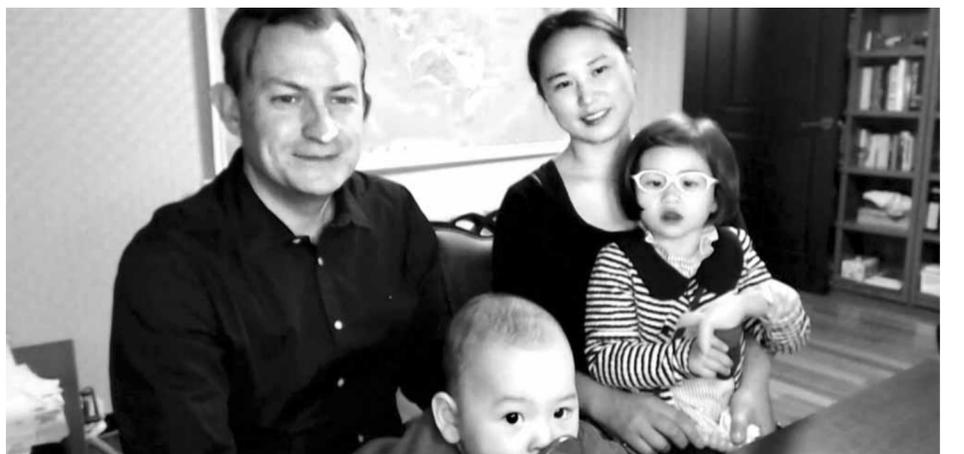


이번엔 기내 헤드폰 배터리 폭발
후교통안전국(ATSB)은 15일 중국 베이징발 호주 멜버른행 비행기에 지난달 19일 탑승한 호주 여성의 헤드폰 배터리가 터져 이 여성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TSB 측은 헤드폰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헤드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한국 관광 금지 전면 확대

롯데 불매 운동으로 시작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이 15일부터 한국 관광 금지로 전면 확대됐다. 한국 방문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으로 겨냥, 중국 당국은 구두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이날부터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는 '꼼수'를 본격적으로 발효시켰다.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관영 언론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롯데 및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불시 소방 점검에 문 닫은 롯데마트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상에서 한국과 롯데를 비하하는 발언이 넘쳐나면서, 반한감정과 롯데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입만 열면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태도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글로벌 시대에 민간인 교류까지 막는 중국 정부의 처사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더러 중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나라라는 지적도 많다. 15일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

(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내 대형 및 중소형 여행사들은 이날부터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이는 최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사드 배치가 가속함에 따라 중국 국가여행국이 보복 차원에서 구두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앞서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행국은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했는데 이날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한국 관광을 금지한 날이 중국의 '소비자의 날'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날은 중국 관영 매체들이 기업이나 제품의 문제점을 들춰내 시정을 요구해 품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외국 제품이나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사세를 위축시키고 자국 기업들을 키우는 용도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한국 관광'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방송 사고' 켈리 가족 인터뷰
BBC 생방송 출연 중 자녀들의 '난입'으로 '방송사고'를 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영국 BBC 월드 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중 켈리의 자녀 두 명이 방으로 들어왔고 이를 알아챈 그의 아내가 뒤늦게 아이들을 방에서 데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만 3000만회 넘게 조회됐다. 켈리 가족은 15일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부산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BBC 방송 캡처>

이 가족이 15일 BBC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켈리 교수가 영국 BBC 월드 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중 켈리의 자녀 두 명이 방으로 들어왔고 이를 알아챈 그의 아내가 뒤늦게 아이들을 방에서 데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만 3000만회 넘게 조회됐다. 켈리 가족은 15일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부산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BBC 방송 캡처>

트럼프·시진핑 내달 정상회담...사드 논의

세계 주요 2개국(G2)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달 초순 정상회담을 통

해 국제무대에서 드디어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

치 부지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을 제쳐놓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이른바 사드보복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실타래 풀기' 역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 1260 - 2 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기회 최고
- 매매 - 평당 50만원 (경매물건 50만원씩 낙찰됨)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191-17번지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키펜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